

# 세계유산이란

1972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세계유산이란, 이 조약에 의거해 후세까지 이어 나가야 하는 유산으로서, 세계유산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문화와 자연의 유산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려면, 자산이 뚜렷하고 보편적 가치(국경이나 시대를 넘어 인류에게 둘도 없는 가치)가 있을 것. 미래에 물려주기 위해 보존 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 후지산을 미래에 계승하기 위해서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은 관계시정촌이나 관계단체와 협력하여 후지산의 자연을 배우고 아름다운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키우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서 등록된 후지산을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지켜보실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후지산 보전 협력금

세계의 보물 후지산을 미래에 계승하기 위해서 등산객에게 '후지산 보전 협력금'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협력금은 후지산의 환경보전이나 안전 대책 등의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발행 후지산 세계문화유산협의회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 미노부초 니시카쓰라초 오시노무라 야마나카코무라 나루사시와무라 후지카와구치코마치 후지요시다시 외 2개촌 온사 현유재산 보호조합 나루사시 후지카와구치코 온사 현유재산 보호조합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누마즈시 미사마시 후지노미야시 후지시 고텐바시 스소노시 시미즈초 나가이즈미초 오야마초

## 야마나시현 현민생활부 세계유산 후지산과

우) 400-8501 야마나시현 고후시 마루노우치 1-6-1  
Tel. 055-223-1330 Fax. 055-223-1781 E-mail fujisan-hz@pref.yamanashi.jp

## 시즈오카현 사무국 시즈오카현 문화·관광부 후지산 세계유산과

우) 420-8601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아오이구 오테마치9-6  
Tel. 054-221-3746 Fax. 054-221-3757 E-mail seka@pref.shizuoka.jp

www.fujisan-3776.jp

## 편집 협력

인정 NPO법인 후지산 세계유산 국민회의

2016년 5월

# 세계유산 WORLD HERITAGE

# 후지산 FUJISAN

## 신앙의 대상과 예술의 원천

SACRED PLACE AND SOURCE OF ARTISTIC INSPI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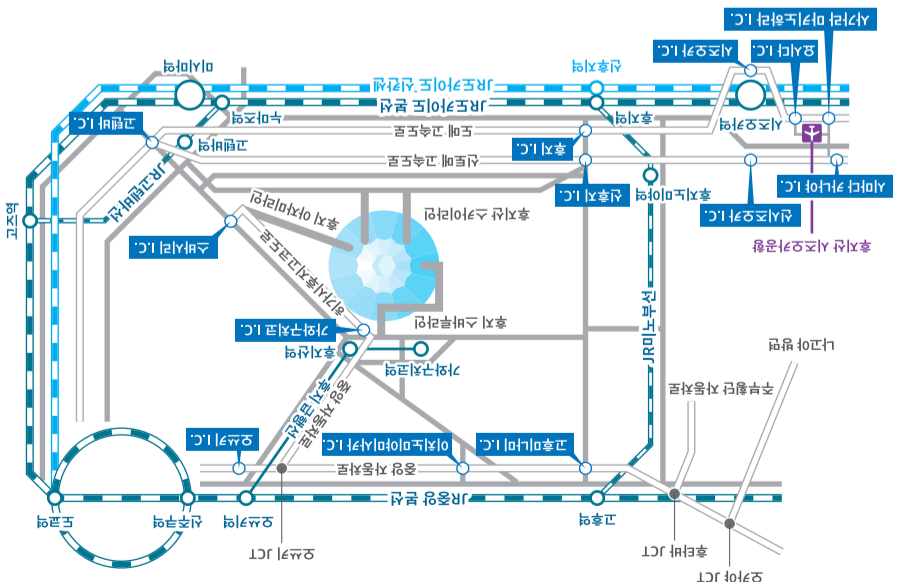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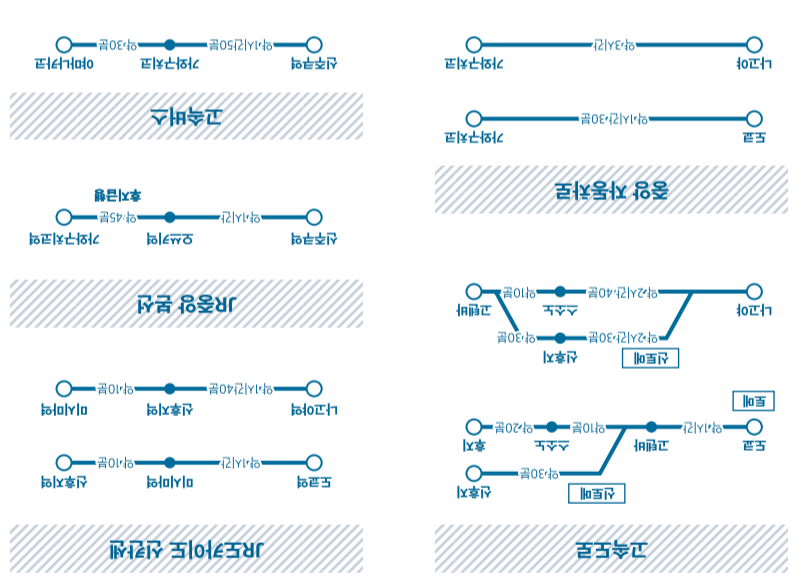
후지산문화재단이 가나자와 오키나미유라 (간썬시카 호쿠사이) 야마나시 원림박물관 소장

# 세계유산이 된 후지산

일본 제일의 높이(해발 3,776미터)의 활화산, 후지산.

2013년 6월에 제37회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후지산 - 신앙의 대상과 예술의 원천'이라는 명칭 하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후지산이 '신앙의 대상'이자 '예술의 원천'으로서, 일본인의 자연관이나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 분화를 반복하던 산으로서, 두려움의 대상이던 후지산은 후지코라 불리우는 신앙집단과 우키요에의 등장 등에 의해 일본인들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자연, 신앙과 예술을 통해서 공생하는 모습은 후지산이 갖는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문화에 관계가 있는 25개소로 구성된 후지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는 미래에 이어 나가야 할 세계의 보물로 인정한 것입니다.



# 후지산

후지산 (1888-1907) 'Fontaine de la Mer', Claude Debussy (1905) 'La Mer', Claude Debussy (1905) 'La Mer', Claude Debussy (1905)

후지산 (1888-1907) 'Fontaine de la Mer', Claude Debussy (1905) 'La Mer', Claude Debussy (1905) 'La Mer', Claude Debussy (1905)

후지산은 신앙의 대상이자 예술의 원천으로서, 일본인의 자연관이나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 분화를 반복하던 산으로서, 두려움의 대상이던 후지산은 후지코라 불리우는 신앙집단과 우키요에의 등장 등에 의해 일본인들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자연, 신앙과 예술을 통해서 공생하는 모습은 후지산이 갖는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문화에 관계가 있는 25개소로 구성된 후지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는 미래에 이어 나가야 할 세계의 보물로 인정한 것입니다.

# 후지산 문화유산

후지산 (1888-1907) 'Fontaine de la Mer', Claude Debussy (1905) 'La Mer', Claude Debussy (1905) 'La Mer', Claude Debussy (1905)

후지산은 신앙의 대상이자 예술의 원천으로서, 일본인의 자연관이나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 분화를 반복하던 산으로서, 두려움의 대상이던 후지산은 후지코라 불리우는 신앙집단과 우키요에의 등장 등에 의해 일본인들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자연, 신앙과 예술을 통해서 공생하는 모습은 후지산이 갖는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문화에 관계가 있는 25개소로 구성된 후지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는 미래에 이어 나가야 할 세계의 보물로 인정한 것입니다.

# 후지산 문화유산

후지산 (1888-1907) 'Fontaine de la Mer', Claude Debussy (1905) 'La Mer', Claude Debussy (1905) 'La Mer', Claude Debussy (1905)

후지산은 신앙의 대상이자 예술의 원천으로서, 일본인의 자연관이나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 분화를 반복하던 산으로서, 두려움의 대상이던 후지산은 후지코라 불리우는 신앙집단과 우키요에의 등장 등에 의해 일본인들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자연, 신앙과 예술을 통해서 공생하는 모습은 후지산이 갖는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문화에 관계가 있는 25개소로 구성된 후지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는 미래에 이어 나가야 할 세계의 보물로 인정한 것입니다.

# 후지산 문화유산

# 분화의 시대

—후지산 신앙의 시작—

그 옛날, 후지산 기술에서는 후지산에 대한 전망을 의식하여 취락이나 제사의 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8세기에서 9세기경, 사람들은 거대한 분화를 불의 신 '아사마노오카미'의 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가라앉히기 위해 산기술에서 산정상을 우러러보고 숭배하는 '요배'의 관습이 생겨나 각지에 요배소(1-6) 기타구치혼구후지센겐 신사, 8) 야마미야센겐 신사)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후지산은 800년 이후, 대규모 분화를 반복해왔습니다. 그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신기술 각지에 아사마노오카미를 기리는 2) 후지산 혼구센겐 타이샤나 7) 가와구치아사마 신사, 8) 후지 오무로센겐 신사 등이 건립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요슈**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와카집, 가미인 야마베노 아카히토가 '다고노우리(시즈오카시 시마즈구의 유이·간바라 일대의 해안 근처)를 지나, 넓은 장소에 나가보니 새하얀 후지산의 높은 산봉우리에 눈이 쌓여 있었다' 라고 후지산의 아름다움을 읊었습니다.

**다케토리노가타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작품, 황제가 가구아히메에게 받은 불도불사의 약을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산에서 태워 그 산은 '불사(후지)의 신이 되었다고 쓰여져 있다.

**소토쿠 태자 그림 (1069년)**  
6세기경에 일본의 정치를 도맡은 소토쿠 태자의 업적을 정리해준 그림. 좋아하는 말을 타고 후지산을 달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하타노지테(소토쿠 태자 그림,3면(부분)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Image: TNM Image Archives

# 수도자와 후지등반

—후지산 신앙의 대중화—

12세기경이 되어 후지산의 분화활동은 진정되었습니다. 수도자라고 불리는 종교인들은 후지산을 산악수행의 땅으로서 후지산의 신봉에서 영력을 얻기 위해 산정상을 목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1-1) 산정상의 신앙유적군) 그 중에서도 후지산에서 수많은 등반 수행을 했다고 전해지는 것이 마쓰다이 쇼닌입니다. 마쓰다이는 산정상에 다이니치지를 건립하여 남쪽 기술의 무라야마에 후지산 고히지(현재의 4) 무라야마센겐 신사)를 건립했다고 하며, 많은 종교인들이 수행의 거점으로써 이용했습니다. 14세기 이후에는 순례자라고 불리는 서민 신자들도 수도자를 따라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산 입구에는 센겐 신사(5) 스야마센겐 신사, 6) 후지센겐 신사) 등을 거점으로 하는 각 등산로(1-2) 오미야, 무라야마구치 등산로, 1-3) 스야마구치 등산로, 1-4) 스바시리구치 등산로, 1-5) 요시다구치 등산로) 의 준비가 이뤄졌고 동시에 각 등산로에서는 신자를 맞이하는 취락이 형성되었습니다.



후지 미호세렌지즈 후지산과 2) 미호노마쓰바라, 세렌지(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시마즈구의 사할)의 세 곳을 구도에 넣은 수묵화 세렌지 소장

1-6



**기타구치 혼구후지 센겐 신사**  
아사마노오카미가 모셔져 있던 요배소를 기원으로 하여 건립되었다고 전해지는 센겐 신사. 후에, 요시다구치 등산로의 기점으로 후지코와 함께 발전한 신사입니다.

2



**후지산 혼구센겐 타이샤**  
전국의 센겐 신사의 총본사. 분화를 잠재우기 위해 아사마노오카미를 숭배한 것을 기원으로 하여 806년에 현재의 신전으로 옮겼습니다.

3



**야마미야센겐 신사**  
후지산 혼구센겐 타이샤의 전신으로 신전 대신에 요배소가 설치되어 후지산의 진화를 믿었다고 합니다.

고후시

9,10



**오시 주택**  
(구 도가와 주택, 오시노 주택) 순례자나 후지코 신자가 등반할 때, 숙식을 제공했던 서당. \*10오시노 주택은 비공개

13~20



**오시노햇카이**  
후지산의 용수에서 걸러져 나온 8개의 못 (와쿠이케, 니고라이케, 가가미이케, 조시이케, 소부이케, 소코나시이케, 오카미이케, 데구치이케)의 총칭. \*후지산내모토햇코'라고 불리는 오래된 영지입니다.

21



**후나쓰타이나이주케이**  
용암류가 수목을 휩쓸어 생긴 용암수형 중, 내부가 인간의 뱃속과 닮은 것을 타이나이주케이라고 부릅니다. 후지코 신자가 '타이나이메구리'라고 하는 신앙활동을 했습니다. \*22요시다이나이주케이 내부는 일반 비공개

22



**요시다이나이주케이**  
후지산의 화산층에서 뿜어져 나온 물이 흘러 나오는 명목. 하세가와 가쿠교가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한 곳으로 여겨져 후지코 신자들의 순례의 장이 되었습니다.

7



**가와구치아사마 신사**  
9세기 후반의 분화를 계기로 건립되었다고 전해지는 센겐 신사. 가와구치의 땅은 수도와 고후분지를 잇는 관도 (연덕길)의 역참으로서 번성했습니다.

8



**후지오무로센겐 신사**  
후지산에서 가장 빨리 세워졌다고 알려진 센겐 신사. 요시다구치 등산로의 2할목에 수행이나 후지코의 거점인 모토미야가, 기타구치 호숫가에는 사토미야가 지어져 있습니다.

1-1



**산정상의 신앙유적군**  
수도자의 등배가 시작되자 산정상의 분화구 벽을 따라 신앙의 거점이 세워졌습니다. 분화구 주변에 있는 8개의 봉우리를 극락정도를 의미하는 여덟개의 꽃잎의 연꽃으로 보고 일컫는 '오하치메구리 (후지산 분화구 순례도) 행해졌습니다.

4



**무라야마센겐 신사**  
마쓰다이쇼닌이 수행로의 거점으로 잡은 센겐 신사. 후지산혼구센겐타이샤를 기점으로 하여 무라야마센겐 신사를 거쳐 산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는 많은 수도자가 이용하였습니다.

1-2



**오미야·무라야마구치 등산로 (현재의 후지야마구치 등산로)**  
산정상의 신앙유적군

5



**스야마센겐 신사**  
스야마구치 등산로의 기점이 된 센겐 신사. 이 길은 호에이 대분화 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3



**스야마구치 등산로 (현재의 고헨바구치 등산로)**  
산정상의 신앙유적군

6



**후지센겐 신사 (스바시리센겐 신사)**  
엔리쿠 대분화 807년에 지어졌다고 전해지는 센겐 신사. 스바시리구치 등산로는 후지코 신자의 순례에 이용되었습니다.

1-4



**스바시리구치 등산로**  
산정상의 신앙유적군

25



**미호노마쓰바라**  
이곳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후지산의 모습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미쳤습니다. '만요슈' 이후의 많은 와카집에 등장하여 '요코쿠' '히고로모'의 무대나 우키요에의 소재로 다루어졌습니다.



<b>구성자산</b>	현재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구역
<b>구성요소</b>	구성요소는 후지산 지역에 포함된다 등산로나 호수 등의 문화재
<b>중립 지대</b>	자신의 휴과적인 보존을 목적으로 자산 주변에 설정한 구역
<b>보전 관리 구역</b>	자산과 중립 지대 외곽에 설정한 자주적 관리 구역

- 1 후지산 지역
- 1-1 산정상의 신앙유적군
- 1-2 오미야·무라야마구치 등산로 (현재의 후지야마구치 등산로)
- 1-3 스야마구치 등산로 (현재의 고헨바구치 등산로)
- 1-4 스바시리구치 등산로
- 1-5 요시다구치 등산로
- 1-6 기타구치혼구후지센겐 신사
- 1-7 사이코
- 1-8 쇼지코
- 1-9 모토스코
- 2 후지산 혼구센겐 타이샤
- 3 야마미야센겐 신사
- 4 라야마센겐 신사
- 5 스야마센겐 신사
- 6 후지센겐 신사 (스바시리센겐 신사)
- 7 가와구치아사마 신사
- 8 후지오무로센겐 신사
- 9 오시 주택 (구 도가와 주택)
- 10 오시 주택 (오시노 주택)
- 11 아마나카코
- 12 가와구치코
- 13 오시노햇카이 (데구치이케)
- 14 오시노햇카이 (오카미이케)
- 15 오시노햇카이 (소코나시이케)
- 16 오시노햇카이 (조시이케)
- 17 오시노햇카이 (와쿠이케)
- 18 오시노햇카이 (니고라이케)
- 19 오시노햇카이 (가가미이케)
- 20 오시노햇카이 (소부이케)
- 21 후나쓰타이나이주케이
- 22 요시다이나이주케이
- 23 히토야나후지코 유적
- 24 시라이토노타키
- 25 미호노마쓰바라

구성자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여기로



# 후지코와 성지순례

—후지산 신앙의 융성—

17세기가 되자 후지산에서 수행한 하세가와 가쿠교를 시조로 하는 후지산 신앙 '후지코'가 탄생하였습니다. 가쿠교가 수행하였다고 하는 2) 히토야나후지코 유적이나 24) 시라이토노타키, 1-7) 사이코, 1-8) 쇼지코, 1-9) 모토스코, 11) 아마나카코, 12) 가와구치코, 13)~20) 오시노햇카이, 21) 후나쓰타이나이주케이, 22) 요시다이나이주케이 등 산 기술의 영지를 둘러보면서 후지산을 숭배하는 '순례'의 신앙형식이 형성됩니다. 18세기에는 후지코가 서민들에게 폭발적으로 유행하였습니다. 각각의 성지를 둘러보는 순례로는 후지산의 구성자산이 된 산 기술의 센겐신사나 각지, 구 유적들과 연결되는 길로써 많은 신자가 왕래했습니다. 또한 등산로에서는 신자를 안내하거나 돌봐주는 승려가 거주하는 8) 10) 오시 주택이 발달하였습니다.



후지산의 순례로도 19세기 중엽의 모습

후지산의 순례로는 순번대로 찾아가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루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후지코의 융성과 함께 많은 순례로가 정비된 19세기 중엽의 순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카이도 고주산쓰기 하라 아사노후지 (우타가와 히로시게)**  
도카이도의 53 역참마을을 그린 우키요에 영역,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바라보는 후지산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다.

시즈오카현립미술관 소장

# 후지산 등산의 다양화

—근대화와 후지산 신앙—



산정상에서 바라보는 해돋이 ©주식회사 플렉스 연구소



시즈오카현립미술관 소장

**군형 후지 (요코야마 다이칸)**  
군형색의 산의 표현과 단색의 대비가 영리한 병풍화.

19세기말 이후, 후지산 주변지역에 철도 및 자동차도로가 정비되어 5할목(5부 능선)에서 등산하는 방법이 개선됨으로써 관광 등 후지등반에 대한 동기가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산정상 등에서 '해돋이'를 보며 절하고, '오하치메구리(후지산 분화구 순례)'를 하는 등, 후지산에 대한 신앙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